

『세이토(靑鞆)』로 본 근대여성문화*

- 서양문화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

朴 裕 美**

(e-mail: sabinaz@hanmail.net)

目 次

1. 시작하며
 2. 근대극의 여성들과 『세이토』
 3. 번역을 통한 서양사상의 수용
 4. 여성생활의 변화
 5. 마치며
-

1. 시작하며

본고에서는 일본 최초로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예지 『세이토(靑鞆)』¹⁾를 통해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서양문화에 대한 수용 양상을 살펴보고 일본 근대여성문화의 한 단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 A0703711)

** 충남대학교 강사. 근현대일본문학 전공

1) 1911년 9월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야스모치 요시(保持研), 나카노 하쓰(中野初), 기우치 테이(木内 錠), 모즈메 가즈코(物集和子) 등을 중심으로 한 젊은 여성들에 의해 창간되어, 1916년 2월 영구 휴간을 맞이하기까지 총 52권이 발행되었다.

‘靑鞆’는 18세기 영국 사교계에서 문학에 취미를 가진 여성을 조롱하여 칭하던 ‘blue stocking’의 역어로, 여성들이 잡지를 발간하면 ‘blue stocking’과 같은 야유를 듣게 될 게 분명하니 선수를 쳐서 잡지명으로 하자는 이쿠타 조코(生田長江)의 조언을 받아들여 제명되었다.

창간호의 권두를 장식한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시 「부질없는 말(そぞろごと)」과 히라쓰카 라이초의 창간사 「태초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는 일본여성의 근대적 각성을 촉구한 대표적 여성해방 선언으로 현재까지도 주목받고 있다.

여성잡지는 여성들의 사회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나 여성의 역할을 제시한다. 근대에 새롭게 성립된 여성문화는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며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맞게 변용시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잡지에 대한 고찰은 근대 일본의 여성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운 문화로 성장했는지 그 전체적 모습을 고찰하는 데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세이토』를 이러한 여성문화 창출의 장으로 보았을 때 서양문화에 대한 수용과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메이지 말에서 다이쇼 초기에 해당하는 『세이토』의 발행시기(1911~1916)는 서양문화가 그렇게 낯설지만도 그렇다고 일본적인 것과 완전히 동화되어 일본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전까지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계몽적으로 주입된 서양문화의 소극적 수용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적합하며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기였으며 이러한 양상이 『세이토』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세이토』는 ‘신여성’으로 표상되는 ‘노라’나 ‘마그다’와 같은 근대극의 여주인공을 논하며 자각한 여성의 모델을 탐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토』가 만들어간 여성문화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 있어 근대극의 여성들이 『세이토』에 끼친 영향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근대극뿐만 아니라 『세이토』에는 다양한 세계문학이 번역·소개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세이토』여성들의 번역작업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보다는 점차 자신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사고를 담은 작품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세이토』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번역한 작품들이야말로 그녀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말해주며 『세이토』의 여성들이 뚜렷한 목적과 사명을 갖고 번역작업에 임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어떠한 작품들이 번역되었는지가 아니라 ‘신여성상’ 창출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외국문학 중 왜 특정 작품을 선택하고 소개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자주 읽히고 그 내용적 특징은 무엇인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한편 ‘세이토의 2대 스캔들’이라 일컬어지는 ‘오색주(五色の酒)²⁾, ‘요시와라견학(吉原登楼)³⁾사건은, 연구자들마저도 흥미위주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

2) 신입사원이었던 오타케 고키치(尾竹紅吉)는 광고를 부탁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방문했다가 다양한 색을 내는 ‘오색주’라는 칵테일을 보게 된다. 이 술을 예찬하는 말과 글로 인해 “여자인 주제에 술 집 출입”이라는 비난과 함께 저널리즘의 표적이 되어 사건은 왜곡되었다.

어 이 사건이 지닌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두 사건이 갖는 의미를 여성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세이토』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여성해방 사상지’로의 가치정립과 여기에 앞장선 일부 여성들의 개인사 연구에 치우쳐 있다.⁴⁾ 이러한 편향된 연구에서 벗어나 『세이토』를 일본 근대 여성문화를 이끌어간 여성들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보고 그 영향과 관계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서양문화의 수용을 통한 새로운 여성문화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세이토』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끌어가던 리더로서 『세이토』를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근대극의 여성들과 『세이토』

『세이토』에서는 다양한 서양문학과 사상을 번역·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활발한 비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인형의 집(人形の家)』이나 『마그다(マグダ)』⁵⁾와 같은 근대극은 『세이토』의 여성들이 신여성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 근대극의 여주인공은 『세이토』 여성들에게 신여성의 모습을 제시하여 주었다.

3) 고키치의 숙부의 제안으로 고키치와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그리고 나카노 하쓰(中野初)가 요시와라(吉原)유곽을 견학하고 하룻밤을 그 곳에서 지냈던 사건

4) 1950년대 중반이후의 『세이토』 연구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의 기수로 일어난 히라쓰카 라이초에 대한 관심과 각광에 힘입어 많은 진척을 보게 되고 라이초의 자서전의 간행으로 일부 세이토사 여성들에 대해 밝혀지게 되었다.

『세이토』 연구의 흐름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페미니즘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환기를 맞이한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가치 있는 텍스트로 인식되면서 여성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1969년 최초의 복각판(復刻版)이 간행되었으나 『세이토』가 일반인들의 시야로 들어온 것은 두 번째 복각이 이루어진 1980년부터라 하겠다. 세 번에 걸쳐 간행된 복각판을 통해 연구에 있어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연구 분야는 급물살을 탄다.

『세이토』 여성들에 대한 발굴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몇몇 여성의 평전과 저작집이 간행되었는데, 그 결실의 하나가 호리바 기요코(堀場清子)의 『세이토시대—히라쓰카 라이초와 신여성들(靑鞆の時代—平塚らいてうと新しい女たち)』이다. 여기에는 『세이토』를 낳고 성장시킨 시대배경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세이토』 여성들에 주목,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이후의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5) 원작은 주더만(Hermann Sudermann)의 『고향』으로 일본에서는 작품 속 여주인공의 이름인 ‘마그다’를 따 제목으로 함.

『세이토』는 이들 근대극에 대한 ‘부록’을 특집으로 편성해 감상과 비평을 게재하고 있다. 근대극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일본 여성들의 현실과 관련지어 성실히 연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들 글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작업이 올바른 신여성상을 모색하고 근대적 자아를 확립해가는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센의 『인형의 집』이 일본에서 초연된 것은 “신여성 등장의 막이 오른 해인 메이지 44(1911)년으로, 『세이토』 창간과 동일한 9월⁶⁾이었다. 이 문제극이 같은 해 11월 제국극장에서 상연되면서 아버지의 집에서는 인형의 딸로 결혼 후에는 인형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 근대부권제의 여성지배의 근간을 고발하며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전에 인간임을 선언하고 집을 떠나는 노라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켜 신여성의 대명사가 되었다.⁷⁾ 그리고 이로 부터 신여성이란 말은 사회전반에 확산된다.

1912년 제2권에 이르러 여성과 사회 그리고 문학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갖춰가며 문예잡지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 『세이토』는 제2권1호에 2/3페이지가량을 할애하여 「부록 노라(付録ノラ)」를 실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을 흥미본위로 쫓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연구한다는 취지 아래 기획되어”⁸⁾ 감상과 비평을 게재하고 있는데, 『인형의 집』에 대해 “원서의 참고서 26종, 일본의 참고문헌 12종과 함께 비평하는 방법의 힌트까지 갖췄을 정도”⁹⁾로 의욕적인 작업이었다.

여기에서 우에노 요코(上野葉子)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인간입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전에 인간이어야 합니다.”라는 원문을 인용하며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인격이 성취”¹⁰⁾된다는 사실을 강한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그녀는 “노라의 자각은 세상 모든 여성의 자각”¹¹⁾이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형의 집에서 여성문제로」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우에노 요코는 노라가 자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좇으며 그것이 세상 모든 여성의 자각이 되길 바라고 있다.

가토 미도리(加藤緑)는 “이 연극을 본 몇 만에 달하는 여성들은 분명 노라의

6) 長谷川啓(1989) 「<新しい女>の探求—附録「ノラ」「マグダ」「新しい女、其他婦人問題に就て」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編 『『青鞥』を読む』、学芸書林 p.286

7) 위의 글 p.287 참조

8) 山本博子(1999) 「『青鞥』における西洋思想の受容」 米田佐代子外編 『『青鞥』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p.144

9) 위의 글 p.144

10) 上野葉子(1912) 「人形の家より女性問題へ」 『青鞥』 2(1) p.94

11) 위의 글 p.89

처지가 되어 먼저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보”¹²⁾고 노라에 공감하게 되었을 것이라 하며 『인형의 집』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분석한다. 그녀는 “우리 일본에는 아직도 자각하지 못한 노라가 많이 있으며, 한편 자각한 노라의 고통을 직접 느끼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 하면서 무엇보다도 “여성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¹³⁾는 기술과 함께 감상을 마치고 있다.

또한 우에다 기미(上田君)는 『인형의 집』의 비극에 의해 근대여성이 겪는 내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평하고 있으며 야스모치 요시(保持研)는 사회를 모르는 노라가 집을 나간 후에 어떻게 되었을지를 걱정하면서도 노라의 용기와 결심을 칭찬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여성이 자각에 이르는 경위를 그림과 동시에 남성들이 하루 빨리 자각해야 함을 설명하고 촉구하고 있는 작품”¹⁴⁾으로 해석하며 여성문제는 남성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자 동시에 사회문제임을 강조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의 감상이나 비평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 해도 노라의 각성을 노라라는 한 여성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동년 5월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가 이끄는 문예협회는 고향을 버리고 떠나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여성의 이야기인 『마그다』를 상연하는데, 이 작품은 공연 칠 일째에 상연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마그다는 군인인 부친과의 의견이 대립하여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사생아를 키우며 가극여배우로서 성공하여 귀향한다. 그러나 재차 부친과 충돌을 일으키고 급기야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자 마그다는 다시 고향을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마그다가 책임이 있는 듯한 결말에 대해 내무성은 교육칙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연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결말을 변경하여 상연을 계속할 수 있었던 문제극임에도 불구하고 제2권6호에 「부록 마그다(付録マダ)」를 특집으로 편성해 관심을 드러냈다. 여기에서는 하세가와 시구레(長谷川時雨),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오타케 고키치(尾竹紅吉), 나가누마 지에(長沼知恵), 기우치 테이(木内 錠)가 감상을 기술하고 있다.

시구레는 높은 평판을 받았던 ‘노라’보다도 ‘마그다’쪽이 자신에게는 보다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하며 “그런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는 해도 친구사상의 충돌에 요즘 사람들치고 다소나마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¹⁵⁾ 평가

12) 加藤緑(1912) 「イブセンの『人形の家』」 『靑鞆』 2(1) p.124

13) 위의 글 p.125

14) 保持研(1912) 「人形の家に就て」 『靑鞆』 2(1) p.153

15) 長谷川時雨(1912) 「文芸協會の『マダ』」 『靑鞆』 2(6) p.1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라이초는 “그녀는 소위 신여성일지 모르나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인간상이 아니다. 새로운 여성이 아니다”¹⁶⁾라고 혹평하면서 “신구양사상의 충들을 문제로 삼는 것은 이미 구태의연하”며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문제도 제공하지 않고 해결도 주지 않는다”¹⁷⁾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라이초가 아버지가 선택한 결혼을 거부하며 가출한 마그다의 행동에 대해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세상의 폭풍 한 가운데로 뛰어든”¹⁸⁾ 것에 불과할 뿐 “진리에 대한 정열”도 “자신의 사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준열함”도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조소를 한 몸에 받으며 사생아를 품에 안은 채 자신과 아이의 끼니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략) 아버지가 없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에 의해 잘 견뎌낸 12년간의 고투가 마그다를 한 사람의 독립한 여성으로 그리고 대예술가로 불릴 만한 여성으로 만들었다.⁽⁹⁾

이런 라이초가 마그다에 대해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로서의 모습이다. 라이초는 마그다가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겠다고는 하나 사실 그녀에게 신성한 유일한 것은 어머니로서의 사랑이었다고 평하는데, 후에 모성주의로 경도되는 라이초 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입센의 또 다른 작품인 『헤다 가블러(ヘッダ、ガブラー)』에 대해서도 창간호에 메레지코스키가 쓴 「헤다 가블러론」의 라이초 번역이 게재되고 다음호에는 라이초와 야스모치 요시(保持研)의 합평이 게재되었다.

헤다는 결혼 후에도 남편 성인 테스만을 따르지 않고 헤다 가블러를 고집할 정도로 자의식이 강하고 자유로운 여성이다. 그런 헤다가 애정도 없이 교수직을 약속받은 남자와 물질적 안락함이 보장된 평범한 결혼생활을 선택함으로써 욕망과 현실의 딜레마 속에 희망과 주체성을 잃고 결국 파멸해 간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헤다 가블러라는 인물에 대해 라이초와 야스모치는 동감하지 못한다. 라이초는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리 해도 각성한 여성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여성의 입장이라도 하등의 동정심도 일지 않으며 평할 가치도 없는 여성”¹⁹⁾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또한 야스모치는 “여성이 갖고 있는 모든 약

16) 平塚らいてう(1912) 「讀んだ『マグダ』」 『青鞥』 2(6) p.7

17) 위의 글 p.7

18) 위의 글 p.9

19) 平塚らいてう・保持研(1911) 「ヘッダ、ガブラ合評」 『青鞥』 1(2) p.106

점의 결정체” “선천적으로 동정과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스스로 문을 받아버린 편협한 이기주의자”²⁰⁾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가정에 귀속되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잃게 되면서 겪는 갈등과 혼란, 인간 이기에 자연스럽게 품고 있는 욕망을 이해하지 못한 두 여성에게는 헤다 가블러라는 인물은 변덕스럽고 비뚤어진 욕망의 결정체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한편 1914년 들어 『세이토』에는 성의 문제에 관한 번역과 평론이 많이 게재되는데, 제4권1호에는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워렌부인의 직업(ウォーレン夫人の職業)』에 대한 합평이 부록으로 실려 있어 주목된다. 특히 매춘을 다루고 있어 영국에서도 상연이 금지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킨 연극에 관심을 갖고 합평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시도라 하겠다.

이 작품에 대해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는 매춘이라는 워렌부인의 직업에 대해 단순히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그만큼 어려운 생활이 가로막고 있음을 이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터전으로 존중해준다. 이토 노에(伊藤野枝)는 “교육을 받지 못해 무지한데다 아무런 기술도 지니지 못한 여성의 직업”²¹⁾에 대해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기술하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성의 처지에 공감하며 매춘이 경시받는 천업인 걸 알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매춘의 길로 접어드는 여성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매춘이라는 직업을 천하다고 경시하기 전에 자각하지 못한 아내들이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 역시 매춘과 마찬가지로 매달고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성의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앞선 일면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 작품 안에서도 근대극이나 서양의 문학 작품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주인공의 교양정도나 근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이토』에 게재된 가와다 요시(川田よし)의 「붉은 나무의 싹(紅き木の芽)」(4권4호)에서는 주인공 요시에(芳江)를 시대를 앞서가는 젊은 여성으로 이미지화하기 위해, 남성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며 ‘노라’나 ‘비비’²²⁾와 같은 근대극의 주인공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근대극을 직접 번역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일반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작품 속에서 다루어지고 언급되는 것이 대중적으로 여성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더욱 유효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근대극의 신여성에 대한 『세이토』의 평이 긍정적

20) 위의 글 p.107

21) 伊藤野枝(1914) 「ウォーレン夫人とその娘」 『靑鞆』 4(1) p.14

22) 비비는 버나드 쇼의 『워렌부인의 직업』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워렌부인의 딸

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라이초는 노라에 대해 아직 인간으로서 자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겨우 깨달았을 뿐이라며 회의적 견해를 피력한다. 더욱이 마그다는 이런 노라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인간상이나 새로운 여성이 아니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그러나 설령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해도 진정한 신여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은 올바른 근대적 여성상을 모색하는 과정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근대극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들을 『세이토』가 논하면서 ‘노라를 예찬하고 마그다를 이상으로 하는 신여성’, ‘일본의 노라 양성소’라며 야유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여성은 세이토 여성들의 상징이 되었으며 사회적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세이토』는 신여성으로 표상되는 근대극의 여주인공을 논하며 자각한 여성의 모델을 탐구하였다. 더불어 신여성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면서 저마다의 사고를 바탕으로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상을 스스로 확립해가며 여성 문화를 만들어갔다. 따라서 이들 근대극의 여주인공이야말로 『세이토』의 사상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번역을 통한 서양사상의 수용

히라쓰카 라이초는 자서전에서 『세이토』 창간 당시의 사상계와 문학계에 대해 “유럽 근대사상이 수입되어 흡사 번역시대, 모방시대”라 할 만큼 러시아 문학, 프랑스문학, 북유럽문학 등이 번역되어 젊은이들이 이들 번역소설에 모여들었다고 회상하고 있다.²³⁾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세이토』 역시 다수의 번역 작품을 게재하고 있다. 전 52권중 번역 작품이 한 편도 실리지 않은 것은 5권6호, 5권8호뿐으로 대개는 매호에 적어도 한 두 작품정도씩 게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유율은 동시대의 타문학잡지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다. 러일전쟁 후 문학계에 있어 가장 현저한 현상의 하나가 번역의 유행이었던 만큼 『세이토』의 작가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구미의 근대사상을 배우고 문학, 희곡, 평론을 읽으며 이들 작품들을 번역하거나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번역 작품들 중에는 포나 모파상처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의 작품도 있으나²⁴⁾ 당시 일본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 게재되는 등

23) 平塚らいてう(1971) 『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 上巻、大月書店 pp.338~339 참조

24) 특히 모파상의 번역에 있어서는 세이토연구회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 모임에서는 모파상의 단편소설이 소설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소설연구의 의미로 번역을 추진하였다.

점차 대중성보다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사고를 담은 작품에 집중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세이토』의 여성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번역한 작품들이야말로 그녀들이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에 이들 작품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사노 도모(淺野 友)는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çois)의 장편소설 『하얀 돌 위에서(Sur la pierre blanche)』의 마지막 장만을 번역하여 「미래의 왕국(未來の王国)」(3권5·6·7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고 있다. 아사노가 번역한 부분은 성별역할과 가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오로지 자신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액자소설이다.

여성은 낮고 평평한 구두에 짧은 머리를 하여 남성과 다를 바 없는 의복을 입고 있는데 여성의 행동을 억압하는 불편한 스타일 즉, ‘여성스러움’이나 ‘여성다움’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 사이의 법적인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약 없이 남녀 모두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존재로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소설의 내용으로 볼 때 메이지민법 하의 가부장제 속에서 자신을 잃고 살아가야 했던 여성들이 멀지 않는 미래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을 매력적인 내용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토 노에가 번역한 마코아(Makower Stanley)의 「울림의 그림자(響の影)」(3권5·6·7·9·10)는 예술가가 되길 바라는 여성이 점차 광기로 치닫는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 라이초는 자서전에서 “어째서 그런 어울리지 않는 작품을 『세이토』에 게재했는지 모르겠다”²⁵⁾고 쓰고 있으나, 이는 음악적 감흥이나 지식 그리고 음악창작의 고뇌 등의 시점으로만 이 작품을 보았기 때문이다. 노에는 다른 여성들처럼 정해진 상대와 아무 말 없이 결혼하여 유순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를 비판하며 맞서는 카프탈이라는 여성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여성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여성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다른 여성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1913년 11월부터 1915년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가 번역한 『소냐 코바레프스키 자서전(ソニヤ・コブレスキーの自伝)』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소냐는 여성으로서 최초로 유럽의 대학교수가 된 러시아의 수학자이며 작가로 그녀의 이야기는 당시 문학청년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었다.²⁶⁾ 그러

25) 앞의 책 23) p.494

26) 『세이토』 제3권8호에 실린 이토 노에의 「동요」라는 작품에는 소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토 노에를 독신이라 여긴 기무라 소타(木村莊太)가 사랑을 고백했던 사건을 다

나 이때 그들의 관심을 끈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와의 스캔들이나 그녀의 화려하면서도 파란만장한 인생에 있었다. 그러나 야에코는 “소나의 지적 향상심에 감명을 받았던 것은 물론이고 화려함과 대극에 있는 소나의 내면의 고통 즉 여성이 품은 번민과 갈등에 끌리고 있었”²⁷⁾던 것처럼 이는 당시 『세이토』 여성들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소나의 삶을 통해 접하게 된 러시아의 여성해방운동에서 『세이토』의 여성들은 자신들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인생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이토』에 번역된 많은 작품들은 여성의 문제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올리브 슈라이너(Olive Schreiner)의 작품들이라 하겠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슈라이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아프리카 농장 이야기』(1883)가 영국 등에서 호평을 받아 유명해졌으며 20세기 페미니즘 고전 중의 하나인 『여성과 노동』(1911)을 집필하여 여성문제 이론가로도 활약하였다.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삶을 실천하는 여성으로 살면서 제국주의와 인종·남녀 차별에 대한 풍자를 담은 작품을 남겼다.

『세이토』에는 꿈의 형태로 여성해방의 문제를 다룬 우화집 『꿈』에 담긴 작품들 중, 「세 개의 꿈(三つの夢)」(3권11호) 「생명의 신의 선물(生の神の賜)」(3권12호) 「환희의 실종(歡喜の失踪)」(4권6호) 「예술가의 비밀(芸術家の秘密)」(4권7호) 「사냥꾼(獵人)」(4권9·10호) 「황폐한 교회(荒れた礼拝堂)」(5권1호) 「왕벌의 꿈(野蜂の夢)」(5권2호) 등 야마다 와카(山田わか)의 번역으로 총 8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꿈』에 대해 야마다 와카는 “당시는 여성의 각성이 충분하지 못했기에 슈라이너가 이를 정면으로 얘기하지 않고 꿈이야기 속에 이상의 싹을 심어놓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다음 시대를 기다렸다”²⁸⁾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먼저 게재된 「세 개의 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 번째 꿈에서는 아이와 복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의식주라는 두꺼운 밧줄로 남자에게 포박당해 있던 여성이 밧줄이 끊겨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꿈은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너야만 다다를 수 있

루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교환된 편지가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노에에게 보낸 6월25일자 소타의 편지에는 “어제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절판된 소나 코발레프스키의 자서전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직 이 책을 읽지 못하셨다면 저의 기쁨을 당신과도 나누고 싶습니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소나의 자서전은 1912년경부터 특히 문학청년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도스토예프스키와의 관계나 화려한 그녀의 인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7) 岩田ななつ(2002) 『文学としての『青鞥』』、不二出版 p.217

28) 앞의 글 8) p.153

는 자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다. 비록 강을 건너다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그렇게 쌓인 수많은 여성들의 주검으로 다리가 만들어져 후대의 여성들은 그 다리를 밟고 자유의 나라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국이 미래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난다.

제4권9호와 10호에 게재된 「사냥꾼」의 이야기는 두 번째 꿈이 그리고 있는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 진실의 하얀 새를 잡기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냥꾼이 죽으면서 얻은 건 하얀 새의 깃털 하나뿐이었지만 이 결말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사냥꾼이 평생에 걸쳐 닦아 놓은 길과 계단을 통해 후세의 사람들은 진실의 세계에 보다 쉽게 그리고 가까이 다다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사랑보다는 자유를 선택한 여성이 결국에는 사랑까지 얻을 수 있거나 남녀의 사랑의 환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만다는 이야기 등 남자에게 기대기보다는 여성의 자유롭고 자립적인 삶을 이상으로 하는 슈라이너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남자에게 의지하는 기생생활을 거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자교육, 직업 등을 강조했던 슈라이너의 사상은 『세이토』 여성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야마다 와카 역시 이에 공감하였기에 많은 작품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야마다 와카는 직접 자신이 육아를 체험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후 엘렌 케이(Ellen Key)의 모성주의 사상으로 경도된다. 한편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슈라이너의 사상은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에게 큰 영향을 주어 이후 전개된 ‘모성보호논쟁’²⁹⁾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에 둔 요사노 아키코의 주장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이 외에도 아나키스트 에마 골드만(Emma Goldman)의 「여성해방의 비극(婦人解放の悲劇)」(3-9) 「소수와 다수(少数と多数)」(3-11)를 이토 노에가 번역하고 있다. 여성이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을 얻고자 한다면 참정권이나 직업을 획득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며 여성에게 내재된 편견이나 풍습 등을 타파하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에마 골드만과의 만남은 이토 노에의 이후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9) 1918년부터 19년에 걸쳐 히라쓰카 라이초와 요사노 아키코를 중심으로 하여 ‘모성보호 논쟁’이 일어난다. 어머니의 역할을 국가적 사업으로 본 라이초는 모성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중심주의’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요사노 아키코는 국가에 의한 모성보호를 ‘노에도덕’ ‘의뢰주의’라 비판하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에 두었다. 이 외에 야마카와(아오야마) 기쿠에 [山川(靑山) 菊英]가 사회주의 입장에서 차별 없는 사회에서만 여성의 해방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야마다 와카(山田わか)는 엘렌 케이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라이초의 모성보호에 동조하면서 논쟁에 가담하였다.

다이쇼기에 들어 고등교육의 보급의 확산과 함께 근대적 서구 사상과 접한 여성들은 남성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연애지상주의’라는 기류에 동승하게 된다. 새로운 시대의 남녀관계는 개인의 의지와 자유의 상징으로 주장되었는데, 자아 확립과 인습타파를 지향하는 ‘신여성’들은 남녀교제를 비도덕적으로 여기는 사회통념과 싸워가며 연애결혼을 이상화했다. 특히 이들 여성들은 해외의 여성해방 사상과의 조우를 계기로 가부장제로부터의 해방을 자유연애결혼에서 찾게 되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스웨덴의 여성해방 사상가 엘렌 케이의 사상적 영향이 지대했다.

『세이토』를 만든 주축이자 편집책임을 맡고 있던 라이초 역시 3권1호부터 3권10호에 걸쳐 엘렌 케이의 『연애와 결혼(恋愛と結婚)』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라이초는 자서전에서 엘렌 케이와의 만남에 대해 “완전히 미지의 연애 세계를 밝게 비쳐준 빛”이라고 말한다. 또한 케이의 저서는 그녀에게 있어 “최상의 연애 교과서”³⁰⁾라고 밝히고 있다. 케이의 사상은 라이초뿐만 아니라 일본근대의 연애결혼관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다이쇼기 후반 베스트셀러를 기록, “공전의 연애 붐”을 일으키며 “다이쇼 연애관의 바이블”로 평가받는다³¹⁾ 『근대 연애관(近代の恋愛観)』³²⁾의 저자 구리야가와 하쿠손(厨川白村)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메이지부터 다이쇼기에 걸쳐 잇달아 소개된 엘렌 케이의 저서는 일본 연애지상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더불어 일본 여성해방 사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근대적 교육을 통해 자아에 눈뜬 여성들은 봉건적 ‘이에(家)제도’의 구속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의 사랑과 그 완결로서의 연애결혼을 이상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고가 관념화되면서 ‘연애’는 곧 ‘결혼’이라는 이상을 내재화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정생활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다 결혼한 후 배우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성관념을 규범화하여 ‘성’을 ‘일부일처제’의 제도적 관계 속에 봉인시키며 ‘처녀’와 ‘정조’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30) 平塚らいてう(1971) 『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平塚らいてう自伝』下巻、大月書店 p.491

31) 이승신(2005) 『大正期<恋愛>表象の領分—セクシュアリティ・ジェンダー・植民地』、筑波大学博士論文 p.22

32) 厨川白村(1922)、改造社

“Love is best”라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작하는 이 저서는 “연애에는 영원한 생명의 힘이 깃들어있다”고 하며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초판 발행 후 1년 사이에 수십 판을 찍는 놀라운 기록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엘렌 케이의 사상을 근거로 하는 『근대 연애관』의 주장, 즉 ‘연애지상주의’와 ‘연애결혼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춰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당시의 앞서가던 여성들이 엄격한 성도덕을 내재화했던 데는 절대적 진리로서 ‘연애결혼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엘렌 케이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당시 여성의 한계점으로서 비판할 수만은 없다. 이는 여성의 존재의식이나 자아의 각성이라는 문제의식의 발로였기 때문이다. 낡은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던 근대라는 시기에 여성들은 수용과 배척을 저울질하며 스스로가 젠더 규범을 확고히 세워야했으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에 ‘연애결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기에 남성에게 종속된 상황에서 탈피하여 여성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해결점을 찾으려 한 사실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여성생활의 변화

『세이토』 여성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서양적인 분위기의 카페, 레스토랑이 생겨나던 시기로 이들은 자주 문예잡지에 광고를 냈다. 신입사원이었던 오타케 고키치(尾竹紅吉)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광고를 부탁하러 이전에 화가들과 간 적이 있는 레스토랑 겸 바인 메종코노스(メイゾン鴻の巣)를 방문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색을 지닌 다섯 종류의 술이 비중의 차이로 섞이지 않고 각기 아름다운 색을 내는 ‘오색주’라는 칵테일을 보게 된다.

‘아네사마’ 가운데 ‘남자 한 사람’ 정도 있어도 좋겠다고 메종코노스에 가서 생각했다.

칵테일을 보자 나가누마 씨의 ‘부채그림’이 다시 생각났는데, 술의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는 벚꽃빛 때문이다.

다섯 빛깔로 나뉜 술을 푸른색 보릿대로 마시면서 (후략) (109)

위의 인용은 오타케 고키치가 제2권7호의 「‘아네사마’와 ‘부채그림’ 전람회」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으로, 실제로 그녀가 다녀온 전시회의 정경과 감상 등을 담고 있다. 그녀는 이 전시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광고를 부탁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메종코노스에 들렀다고 한다. 화가인 오타케 고키치가 그때까지 접해본 적이 없는 화려한 빛깔의 칵테일에 매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으며 그녀 역시 당시의 흥분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레스토랑이 『세이토』 제2권7호와 8호에 실제로 광고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문예지인 『세이토』에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은 여성들을 고객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말해주며, 그만큼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레스토랑이 그리 낯설지 않은 장소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고키치 역시 광고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이 칵테일의 매력은 낯설고 이국적인 서양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들의 생활 한가운데까지 서양문화가 스며들어와 여성들은 이미 근대를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의 저널리즘은 여자인 주제에 술집에 출입한다고 비난하며 여성들을 봉건적인 잣대로 규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양상은 제2권2호의 「편집실로부터」에 실린 신년모임에 대한 보고를 둘러싼 비판에서도 보인다. 이 모임에서 오전까지는 화로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바둑을 두던 여성들이 오후부터는 손님 접대를 맡은 아라키 이쿠코(荒木郁子)가 제공한 맥주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담소를 나눈 상황을 전하고 있다. 맥주를 마신 데 대해서는 “맥주와 안주가 묘한 매력이 있”으며 “거품이 인 컵에 미련이 남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남성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세이토』는 이런 조소적 반응에 주눅 들기는커녕 제2권6호에서는 전달 5월 13일에 있었던 미팅에 대해 전하며 이날 밤에도 일본술과 맥주 그리고 양주 12 종류를 섞어 마신 것을 대담하게 밝히고 있다.

나는 이 기사를 쓰기에 앞서 우리들 동인들이 미팅날 밤에 일본술과 맥주와 양주 12 종류를 대담하게 섞어 마신 것을 밝혀두고 싶다. (중략)

우리 동인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신여성도 아니다. 우리들은 반항과 허위를 결코 알지 못한다. (중략)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싶다. 어디까지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함께 한 동인 30명은 모두 수돗물과 사이다 그리고 레몬에이드나 꿀물에도 취할 법한 사람들뿐이었다. 그래도 우리들은 고키치의 작품과 하야시 씨의 마리의 성공을 기뻐하며 축하를 올렸다. 그리고 동인 자신들의 승리의 생활에 축복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121)

그리고 더불어 자신들을 허위나 반항으로 치장하고 싶지 않으며 진지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생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 한다. 여성들의 사고가 변해가듯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의 모습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그러한 변화된 자신들의 일상의 모습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밝히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세를 볼 수 있다.

고키치와 관련한 또 하나의 스캔들이 바로 ‘요시와라견학’ 사건이다. 고키치의 숙부인 일본화가 오타케 지쿠하(尾竹竹坡)가 여성의 문제를 연구한다면 불행한 여성의 생활을 실제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요시와라 유곽의 견학을 제안한다. 이에 고키치와 라이초 그리고 나카노 하쓰(中野初)는 ‘다이문지로(大文字楼)’의 유녀 에이잔(栄山)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룻밤을 그 곳에서 묵었다. 고키치는 이후에도 에이잔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게 된다.

이 소문을 들은 『요로즈초호(万朝報)』 기자가 회견을 요청하자 고키치는 개방적 태도로 모든 것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여문사의 요시와라 유흥(女文士の吉原遊び)」이라는 타이틀로 1912년 7월 10일에 기사화 되었다. 이어서 『고쿠민신문(国民新聞)』이 「소위신여성」이라는 타이틀로 4회에 걸쳐 연재(7월12일~15일)를 기획, ‘소위 신여성’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여문사라고 뽐낸다(恟れたのが女文士で威張る)」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아라키 이쿠코를 시작으로 라이초, 고키치, 하쓰 등의 사생활을 파헤치며 흥밋거리로 삼았다.

요시와라의 유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하룻밤을 그곳에서 묵었다는 것만으로 지식인들마저 저널리즘에 동참하여 『세이토』 여성들에 대한 비난에 가세하였다. 세이토사의 사무실과 라이초의 집에 투석과 협박장이 날아들었으며 가미치카 이치코(神近市子)는 이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토사원이란 이유만으로 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처럼 세이토의 여성들은 모두 가십거리가 되어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가족들로부터도 질책과 함께 감시를 받게 되자 탈퇴하는 사원과 구독중지가 속출했다. 이렇게 하여 세이토사의 수난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세이토』를 탄생시킨 장본인의 한 사람인 야스모치 요시(保持研)는 요시와라유곽 견학에 대해 “그저 여자로서 과거의 인습을 깨뜨리고 여자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행동을 대담하게 하는 말팔량이 아가씨에 불과하다”³³⁾는 내용의 엽서를 라이초에게 보내 “당신들이 그곳에 간 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웬지 내가 모욕을 당한 것 같아 슬펐다”고 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채 질책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동인들로부터도 문제를 일으킨 여성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특히 고키치에 대해서는 퇴사 압력이 거세게 일어났다.³⁴⁾

당시는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日本基督教婦人矯風会)등을 중심으로 폐창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시대였으며 교풍회의 폐창운동은 성매매 여성을 불결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녀들을 ‘천업부’ ‘추업부’로 낙인찍었

33) 平塚らいてう(1912) 「円窓より—茅ヶ崎へ茅ヶ崎へ」 『靑鞆』2(8) p.78

34) 『세이토』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는 박유미(2009) 「『세이토(靑鞆)』의 여성담론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4~25 참조

다. 이토 노에는 이에 대해 ‘천업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교풍회의 폐창운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그녀는 여성이 생활난 때문에 ‘천업부’로 추락해가는 데 공감하며 ‘매춘’은 교육도 예능도 없는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직업’으로 이를 비천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반박했던 것이다.³⁵⁾ 이는 앞서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위렌부인에 대해 『세이토』 여성들이 단순히 매춘을 업으로 삼은 여성들을 비판하기 보다는 여성을 그러한 직업으로 내모는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풍회의 폐창운동과는 관점을 달리하는 『세이토』 여성들의 사고를 읽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세이토』 여성들이 진정으로 근대의 평등사상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업으로 천대받던 유곽의 여성들과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구로 지내고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아파했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그렇기에 세이토사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인습타파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행동에 공감하고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해 9월호부터 문예잡지 출판의 도운도(東雲堂)에서 출판을 담당하며 부수는 3천부까지 오른다. 『세이토』가 이처럼 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동참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만큼 『세이토』가 당시의 여성들과 공유하는 바가 컸음을 말해준다. 이는 또한 여성들의 고민과 의문 그리고 바람과 요구를 대변하는 『세이토』의 면모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교육을 받은 일부 여성들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여성들에게까지 확산되는데, 그렇기에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당시 일본여성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세이토』의 작품 속에 묘사되고 있는 여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직업(학생 포함)을 갖고 있거나 갖고자 하는 여성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이다. 산술이나 부기, 타이프라이터를 배우고 영어회화를 익히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가는 여성의 모습이랄든지 그 외에도 간호사, 화가, 교원, 상점 판매원 등 실로 다양한 직업의 여성들을 묘사하고 있다.

무라카미 노부히코(村上信彦)에 의하면 “다이쇼기에는 여성이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이상하다든가 여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은 줄어들고 여성잡지가 여성의

35) 伊藤野枝(1915) 「傲慢狹量にして不徹底なる日本婦人の公共事業に就いて」 『靑鞆』 5(11) 참조

위의 글에서 이토 노에가 중상류층 여성단체의 공공사업이나 자선활동이 허영심의 발로라며 그 기만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의 공창폐지운동을 하층사회에 대한 몰이해와 천시에 의한 ‘천업부’ 배척운동이라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되어 1915년부터 17년에 걸쳐 폐창논쟁이 전개된다. 이 논쟁에는 아오야마 기쿠에(青山菊栄)와 교풍회 설립자인 야지마 가지코(矢島楯子) 그리고 히라쓰카 라이초 등이 가담하였다.

직업안내를 특집으로 하는 등 여성의 직업진출을 새로운 시대의 특징으로 여기게 되었다”³⁶⁾고 한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여성의 직업이 좋은 싫든 확대되어 이전에는 특수했던 취직자수가 증대되고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직업부인’³⁷⁾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점차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직업을 여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세이토』는 여성생활의 이러한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유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5. 마치며

본고는 일본 최초의 여성문예지라 일컬어지는 『세이토』를 통해 서양 문화와 사상 등 서양문화를 접하면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맞게 변용시켰는지 그 수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세이토』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근대극에 대해 일본 여성들의 문제와 관련지어 깊게 연구하였다는 데 주목하여, 신여성으로 표상되는 근대극의 여주인공을 논하며 자각한 여성의 모델을 탐구하면서 스스로 신여성의 모습을 체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세이토』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번역한 작품들이야말로 그녀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관점으로 엘렌 케이, 에마 골드만, 올리브 슈라이너 등의 글이 『세이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번역된 작품들은 대부분 여성의 문제라는 시점으로 선택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세이토의 2대 스캔들’이라 불리며 흥미위주로 다루어지던 ‘오색주’와 ‘요시와라견학’사건이 지닌 본질적 의미는 서구화된 문화가 여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여성들이 근대적 평등사상을 수용·실천한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잡지는 여성들의 사회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시대가

36) 村上信彦(1983) 『大正期の職業婦人』、ドメス出版 p.71

37) 직업부인의 의미는 “일정한 사회적 직업을 갖은 여성을 가리키며, 더 구체적으로는 보수를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일정한 고용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 [(1983) 『職業婦人について』 『女給生活の新研究』 近代婦人問題名著選集 社会問題編 第3卷、日本図書センター p.3]을 가리키나, “얼마간 지적 내지 정신적인 사무직, 보조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성노동자와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1931-32) 『婦人公論大学』 社会科学編、中央公論 p.8]

요구한 이상적인 여성상이나 여성의 역할을 제시한다. 따라서 『세이토』와 같은 여성 잡지에 대한 고찰은 근대 일본의 여성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운 문화로 성장했는지 그 전체적 모습을 고찰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서양문화의 수용을 통한 새로운 여성문화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세이토』의 분석을 시도하여 여성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끌어가던 리더로서 『세이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박유미(2009) 『「세이토(靑鞆)」의 여성담론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신(2005) 『大正期<恋愛>表象の領分—セクシュアリティ・ジェンダー・植民地』、
筑波大学博士論文
(1931-32) 『婦人公論大学』社会科学編、中央公論
(1983) 『靑鞆』復刻版、不二出版
(1983) 「職業婦人について」 『女給生活の新研究』近代婦人問題名著選集 社会問題編
第3巻、日本図書センター
伊藤野枝(1915) 「傲慢狭量にして不徹底なる日本婦人の公共事業に就いて」 『靑鞆』
5(11)
厨川白村(1922) 『근대 연애관(近代の恋愛観)』、改造社
長谷川啓(1989) 「<新しい女>の探求—附録「ノラ」「マグダ」「新しい女、其他婦人
問題に就て」」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編 『『靑鞆』を読む』、学芸書林
平塚らいてう(1912) 「円窓より—茅ヶ崎へ茅ヶ崎へ」 『靑鞆』2(8)
_____ (1971) 『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上·下巻、大月書店
村上信彦(1983) 『大正期の職業婦人』、ドメス出版
山本博子(1999) 「『靑鞆』における西洋思想の受容」米田佐代子外編 『『靑鞆』を学ぶ
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要 旨

This study is to research an aspect of the modern women's culture through the first Japanese women's literary magazine, 『Seito』. To be more specific, it scrutinizes how Japanese women in the modern society accepted the western culture.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pays attention to that translated writings in 『Seito』 actually represent what the women pursued and aimed to achieve through literature. Therefore, this study thoroughly reviews why the 『Seito』 members selected specific writings out of so many foreign literary works. It confirms that many of the writings translated in 『Seito』 were selected due to issues of women in them.

『Seito』 issued supplements about the modern theater in order for in-depth research on them as the members thought the plays depicted issues of women. 『Seito』 discussed the protagonists of the modern plays to study enlightened female characters and embody their own character of the modern woman.

When people talk about 『Seitō』, it is often mentioned “Five color drink” and “Yoshiwaradeungru” incidents. This study views that the incidents indicate the effect of western culture on women's sphere and acceptance of the modern idea of equality.

Women's magazines suggest the feminine ideal or woman's roles of the era. Therefore, the research over women's magazines like 『Seitō』 can be effective in studying how the modern Japanese women's culture changed, emerged, and grew as a new culture.

キーワード : *Seito*, modern, womens' culture, women's magazine, modern theater, western literature, western culture, vocation

투 고 : 2014. 8. 31
1차 심사 : 2014. 9. 13
2차 심사 : 2014. 10. 4